

제주, 1만명당 ‘통합돌봄’ 신청자 전국 2위

전남·광주 93.3명 이어 65.9명 기록… 전국 평균 41.0명
퇴원환자 지원·병원 동행 등 지역특화서비스 제공 주요

지난 4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100일을 맞은 가운데, 제주지역의 노인인구 1만 명당 신청자가 전남·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제주 시와 서귀포시 등 양 행정사에서 추진 중인 지역별 특화 서비스 지원이 주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통합돌봄 본사업(3월 27일) 시행 이후 신청·접수를 완료한 대상자는 지난 6월말 기준 4만6215명이다. 65세 이상 노인 4만5619명(98.7%), 장애인 1만6568명(35.8%, 고령 장애인 중복 집계)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1만 명당 신청자 수(전국평균 41.0명)가 많은 지역은 전남·광주 93.3명(7295명, 이하 실제 신청자 수 생략), 제주 65.9명(898명), 대전 53.4명(1516명), 전북 52.0명(2435명) 등이다. 반면 신청자 수가 적은 지역은 울산 21.0명(442명), 경기 25.2명(6335명), 인천 25.5명(1516명),

대구 33.4명(1784명) 등이다.

제주시는 지역특화서비스로 ▷퇴원환자 안심 재가복귀 지원 ▷퇴원환자 이동 및 병원 동행 지원 ▷일시재가 지원 ▷대청소 및 정리 수납 ▷이불 빨래 서비스 ▷안



제주시는 지난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에 의거, 의료·요양·돌봄을 통합 제공토록 한 돌봄체계의 연속적 지원모델의 일환으로 퇴원환자 단기 집중 서비스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전생활환경 조성 ▷돌봄가족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일시재가 지원 등 7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방문 의료 및 방문 복약지도, 퇴원환자 연계 지원, 어르신 병원 동행, 주거 편의 지원 등 5개 특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정부가 단순 실적관리가 아닌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중심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성과기반의 예산 지원체계를 도입, 매년 지방정부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예산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2026년 주요 성과지표는 전담조직 및 인력 확보, 사업운영 실적 외의 이용자 만족도, 재가생활 유지기간, 요양병원 입원을 변화 등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제주시, 주인 없는 노후간판 정비 완료 방치 간판 16개 철거… 안전사고 예방·도시경관 개선

제주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인 없는 노후간판 16개를 정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폐업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노후간판을 철거해 강풍,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낙하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철거에 앞서 시는 지난 3월 ‘주인 없는 노후 간판 무료 철거 지원사업’ 신청을 받은 뒤 현장을 확인하고, 간판의 노후도와 위험성, 작업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비 대상지를 선정했다. 이후 5월부터 6월 말까지 건물 11곳에 설치된 노후간판 16개를 철거했다.

특히 이번 정비는 제주특별자치

도 옥외광고협회 제주시지부(지부장 이재일)의 재능기부로 추진돼 별도 철거비용 없이 진행됐다. 이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시는 앞으로도 노후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희 도시재생과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태풍과 집중호우 등 기상 이변이 빈번해지면서 노후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위험요인을 사전에 정비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금탁기자

서귀포시, 제주중장년기술창업센터 입주기업 모집

서귀포시는 오는 29일까지 제주중장년기술창업센터에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입주 대상은 40세 이상의 예비 및 초기 창업자이며 일부 좌석에 대해서는 연령과 무관하게 7년 이내의 업력을 가진 사업자도 입주할 수 있다.

모집 공고 및 신청방법은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홈페이지(https://startupbay.or.kr), K-Startup 창업공간플랫폼,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입주공간은 제주혁신도시 복합 혁신센터에 위치하며, 공동형 사무실 내 1인 지정석으로 지원된다. 이번 모집 대상은 8개팀 내외다.

입주기업으로 선정되면 사무공간 외에도 투자연계지원 프로그램, 분야별 전문가 및 매니저 멘토링, 맞춤형 창업교육 등 창업주기에 따른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반기에 진행되는 개별 공모(IR 데모데이)에 따라 우수 창업팀은 최대 300만원의 초기 사업화 자금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백금탁기자

제주도, 민선 9기 회의 운영 개편

행정시 현안회의 정례화·공공기관장 회의 도입

제주도가 정례 행정시 현안회의와 공공기관장 회의를 도입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도청 삼다홀에서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민선 9기 회의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의사결정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회의는 원칙적으로 열지

않고, 회의자료는 안전별 1페이지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매월 첫째 월요일 열리는 월간 정책회의는 실시간 생중계로 한다.

이와 함께 제주도와 양 행정시가 함께 참여하는 현안회의가 매주 화요일 열린다. 행정시 현안회의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격주로 번갈

아 참여한다. 제주도는 해당 회의를 통해 생활민원과 도시관리, 지역 갈등, 행정시 지원 요청사항 등 도와 행정시가 함께 풀어야 할 현안을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장 회의는 격월로 열어 공공기관의 성과 달성도와 도정과 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대행업

무 관리와 기관별 역할을 함께 살핀다. 도는 새로운 회의 방식을 8월까지 시범 운영한 뒤 보완을 거쳐 최종 매뉴얼을 확정할 계획이다.

위성곤 지사는 “회의는 보고를 듣고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현안을 공유하고 쟁점을 조정해 실행을 결정하는 자리로 만들어가야 한다”며 “월간정책회의는 도정의 큰 방향과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주간정책회의는 당면 현안과 부서 간 협업 사항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실내공기질 측정대행기관’ 지정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가 제주 첫 ‘실내공기질 측정대행기관’으로 지정됐다.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는 제주

제1호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으로 등록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센터는 도내 실내공기질 관리를 전담하는 전문기관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이번 지정은 도내에서 실내공기질을 전문적으로 측정·분석할 수 있는 기반이 처음 마련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센터 측은 설명했다. 그동안 도내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은 도외 업체에 의존

해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왔다.

김진근 센터장(제주대 환경공학과 교수)은 “제주지역이 자체적으로 실내공기질을 전문 관리할 수 있는 자립 기반을 다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김지은기자

JM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치,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채권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당 : 금융채권 매도 상당(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大賞
KOREA PRESTIGE BRAND AWARDS 2022